

# The Pathfinder for Mobility

SK증권 Mobility  
 » 윤혁진/박준형, 3773-8589



2025-03-20

## 자율주행 고래싸움: 후진 중인 테슬라와 고속 주행 중인 BYD

- 테슬라 판매 부진, Tesla Takedown 시위 등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확대되며 올해 들어 주가 급락. 판매량은 2월까지가 바닥이고, 3월부터는 회복 예상. 본격적인 센티 개선은 6월에 집중(저가차량 출시, 비감독 FSD출시,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)
- BYD 차량 판매 고속 성장 중, 자사 차량에 자율주행 God's Eye 무료 탑재, 차원이 다른 급속충전 기술 선보이며 주가도 신 고가 갱신 중

테슬라: 모델Y F/L Juniper 출시 전 수요 감소,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(Tesla Takedown) 확대 등 악재 만발

- 테슬라 2월 소매 판매량은 -26%MoM, -38%YoY 감소한 8.7만대로 추정되며, 1~2월 누적 판매량도 -27%YoY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 1월 유럽 판매량은 전년대비 -45% 줄었고 독일에서는 1월 -60%, 2월 -76% 각각 급감
- 일론 머스크가 독일 선거기간 동안 극우 정당인 AfD를 공개 지지하고, 정부효율부(DOGE)의 수장으로 공무원 해고를 대규모로 실시하면서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들의 반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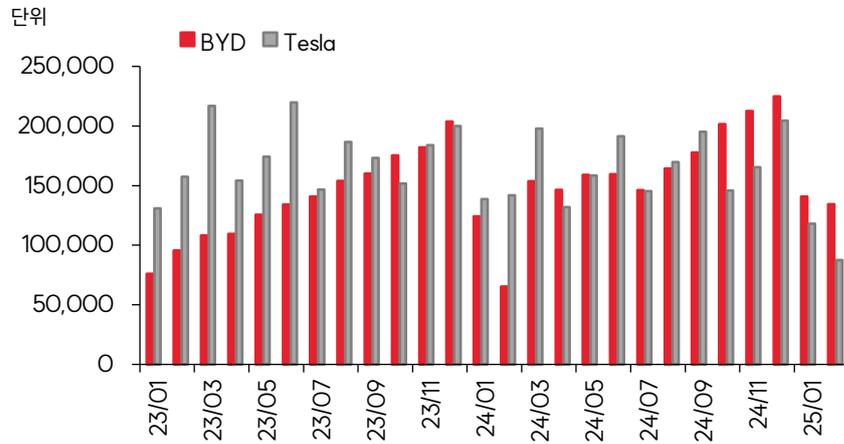
테슬라 반전은 없나?

- 모델Y F/L인 Juniper는 중국은 2월말, 미국과 유럽은 3월부터 고객 인도 시작. 결국 테슬라 판매량은 3월부터 반등 예정
- 중국에서 FSD 1달간 무료 체험. 미국에서도 이미 2번에 걸쳐 FSD 무료 배포를 실시했으며, 그 후 FSD 구독률이 상승.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FSD무료 배포를 통한 데이터 확보 필요
-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(CPUC)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신청을 승인.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차량국(DMV)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받고, 그 다음 CPUC로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유료 승객 운송 허가 획득해야 로보택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
- 결국 6월 중으로 예상되는 저가차량 출시, 비감독(Unsupervised) FSD 출시,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으로 다시 반등이 예상됨

BYD: 판매량 고속 성장 중, 자율주행 God's Eye 무료 배포, 차원이 다른 급속충전 기술 선보임

- 테슬라와 달리 BYD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. 1~2월 누적 판매량은 +88% 증가한 67.3만대, 그 중 BEV는 +45% 증가한 27.5만대를 기록(24년 연간 판매량도 전년대비 +44% 증가한 451만대 기록)
- 유럽에 공장을 신설 중. 헝가리(25년 10월 생산 시작)와 터키(26년 3월 가동 예정), 다음 3번째 공장으로 독일 공장을 고려 중
- 자율주행 기능을 3등급으로 나눠 무료 배포(테슬라 FSD \$8,000) 중. 최근 스마트 주행 기능이 탑재된 신모델 21종 출시를 발표, 10만위안대 모델에서도 고속도로 NOA (Navigation On Autopilot) 및 자동 주차 기능(AVP)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 예정
- 4월 신규 출시 차량(漢, 唐)에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 적용(테슬라 슈퍼차저는 10분 충전에 275km 주행 가능)
- 배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충전기술, 자율주행 무료 보급, 판매량 급증 등 이미 글로벌 탑 수준의 전기차 회사임을 증명 중

Tesla와 BYD의 전기차(BEV) 판매량 추이



자료: SK 증권

테슬라 최근 1년간 주가 추이



자료: SK 증권

BYD 최근 1년간 주가 추이



자료: SK 증권

3/1 뉴욕에서 열린 테슬라 시위의 날



자료: 로이터, SK 증권

반 테슬라 시위



자료: SK 증권

BYD 한(漢)L, 탕(唐)L EV 출시: 가격대는 5,400만원부터



자료 : BYD, SK 증권

5분 충전으로 443km 주행



자료 : BYD, SK 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